

TITLE John Calvin의 생애와 저작

IN 신학논단, Vol.1 (1953)

JOHN CALVIN의 생애와 저작

신 영 일

I. 서 론

John Calvin은 1509년 7월 10일에 불란서 Picardy 지방에 있는 Noyon에서 출생하여 1564년 5월 27일 서서(瑞西) Geneva에서 서거할 때까지 55년간의 그의 생애를 연구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사분(四分)할 수 있다.

1. Calvin의 출생과 불란서에서 서서로 가기까지 (1509~1536)
2. Calvin의 제 1 차 geneva 체재와 그의 업적 (1536~1538)
3. 독일에서의 Calvin (1538~1541)
4. Calvin의 제 2 차 geneva 체재와 그의 사업과 주검 (1541~1564)

이제 이 체한된 지면위에 상기한 순서에 따라서 그의 생애를 기술하고자 한다.

(I) Calvin은 1509년 7월 10일 유명한 사원가인 Noyon에서 gerard Cawrin과 geanne Lefrance를 부모로 하고 출생하였다. 그에게는 사인의 형제와 이인의 자매가 있었는데 두 형제는 일찍이 죽고 남은 두 형제는 승직에 있었는데 맏형인 Charles는 어떤 사원의 성직자였으나 (1518년 취임), 1531년에 이단으로 몰리워서 파문 당하고 1537년 10월 1일에 사망하였다.

동생인 Antoine는 Javersy 가까이에 있는 Journerolle에서 역시 목사였는데 후에 형인 Calvin을 따라서 개종하고 Geneva에까지 와서 Calvin의 사후에도 1573년까지 살면서 교회와 공화국의 중직을 맡아 지키고 일하였다.

Calvin은 14세 나던해(1523년)에 파리에 나가서 The Collège de la Marche에서 문법과 수사학을 석학 Martharin Cordier에게 배웠으며 동시에 라전어의 사색법과 작문법도 습득하였다. 그는 다시 엄격한 교회학교인 montague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1528년에는 Romanism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Ignatius Loyola와 같은 방 같은 선생밑에서 같이 공부하였다니 16세기의 정반대되는 두개의 종교운동의 지도자가 이렇게 한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수 없다.

Calvin은 야심있는 부친의 소원대로 법률공부를 하고저 Orleans와 Bourges 대학에서 청강하였고 부친의 서거후에는 하고싶었던 고전문학과 신학 공부에 전심하였다. 그는 Orleans, Bourges 그리고 또 Paris 이 세 대학교에서 1528년에서 1533년까지 공부하였으며 성적은 교수들이 오히려 배우려 오게 되리만치 우수하였지만, 과도의 무리한 학구생활로 인해서 그의 일생을 괴롭게 한 두통과 소화불량증과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다. Calvin은 Greek과 Hebrew를 독일의 유명한 인문학자인 Melchior Volmar(1561년에 죽음)에게서 배웠고 법률은 당시 최대의 법률학자인 Orleans 대학의 Pierre d'estoile 와 Bourges 대학의 Adrea Alciati 밑에서 공부하였다. 1531년 2월 14일에 Orleans 대학에서 교수회의 만장일치 가결로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병환중에 있는 부친을 동년 여름에 고향에 방문한 그는 동생인 Antoine를 데리고 다시 파리에 와서 당시 Orleans에서 백과사전이라는 평이 있던 Pierre Danes 밑에서 주로 고전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1532년 4월에 23세의 청년으로서 Calvin은 그의 첫 저서인 Seneca의 "De Clementia"의 주역서를 파리에서 발간하여 당대 최대의 인문주의자인 Erasmus와 또한 소년시대의 벗인 Momor 의 귀족의 자식이며 당시 Noyon에 있는 ST. Eloy 수도원장 Clande de Hangest에게 각각 현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순실한 인문주의자로서의 Calvin을 찾아 볼수 있을 뿐이다.

1532년(23세)에 인문주의자로서 법률가로서 또한 교회인으로서 이미 쟁쟁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Calvin은 돌연 박해당하는 종교개혁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 우렁찬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길이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우리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코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1533년 10월부의 Francis Daniel에 한 편지에서 비로소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볼수 있으며 Sorbonne에 대해서는 1533년 11월에 비로소 공격의 입을 열게 된 것이었다. 1533년 10월 10일에 저명한 왕실의사였던 Nicolascop라는 이가 Sorbonne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때에 그 취임연설문을 기초한 사람이 곧 그의 친구인 Calvin이었던 것이다. 일단 그의 폭탄적인 연설이 행하여지자 Sorbonne 당국과 의회는 이것은 곧 구교에 대한 신교의 선전포고라고 생각하여 가혹한 압박을 개시하게 되어서 Cop는 Basel에 Calvin은 다시 Paris로 피했고 그들의 서적과 문서일체가 다 경찰에 의하여 암수당하고 말게되었다.

동시에 Francis I세는 명을 내려서 신교도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니 1534년 11월 10일에서부터 1535년 5월 5일 까지 사이에 24명의 무죄한 신교도들이 회형에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Calvin은 그의 벗인 Du Lillet와 같이 Strassburg에 피난하게 되었고 그는 1533년에서 1536년까지 근3년간을 남불(南佛), 서서(瑞西), 이태리를 거쳐서 목적지 Gereva에 도착할때까지 유랑하는 전도인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는 1533년과 1534년에는 Francis I세의 누님이 되는 Navarre의 Margaret 여왕의 보호밑에서 여왕의 고향인 Augouleme에서 보냈으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Augouleme에서 Calvine은 Louis du Lillet 같은 부귀한 친구를 얻었는데 그는 3,000내지 4,000권의 훌륭한 도서를 가지고 있어서 Calvin은 그에게 Greek을 가르치면서 신학연구에 전심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유명한 기독교강요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Olivetan을 도와서 성서의 불역(佛訳)을 완성하였고 초판은 Calvin의 서문을 가지고 1535년 6월 Neuchatel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534년에 Calvin은 Paris 행을 결정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반아인 의사인 Michael Servetus를 만났다. 불란서의 개혁자 박해는 심해져서 Calvin은 다시 Louis du Lillet와 같이 조국을 떠나서 독일로 갔다. Strassburg에서 그는 Bucer의 환대를 받았으며 다시 Basel에 가서는 당시(當地)대학교의 수녀자인 Simon Grynoeus와 Wolfgang Capito 같은 학자에 의하여 환영을 받았으며 Calvin은 이곳에서 Grynoeus의 자도하에 Hebrew 공부를 완성하였다. 1536년 3월에 Calvin은 다시 Louis du Lillet과 같이 이태리에 갔다. 그는 이곳에서 불란서 Louis XII 세의 둘째딸 되는 Renee 여공주의 존경과 우대를 받았으나 다시 떠나서 Basel에의 친구 Da Lillet와 작별하고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동생 Antoine와 누이 동생인 Marie를 데리고 영원히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는 Ba-

sel이나 Strassburg에서 학도와 저작자로서의 조용한 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했으나 당시 Charles V세와 Francis I세와의 전쟁으로 바로 Lorraine으로 봇오고 Geneva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II) Calvin은 1536년도 늦은 7월에 두 동생 Antoine와 Marie를 둘 반하고 Geneva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일생의 친구인 Farel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수교로서 Calvin은 Geneva 어떤 복음교회의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Farel은 Geneva에게 종교개혁의 불파, Calvin을 주었으니 이로서 Farel은 종교개혁사상 빛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Calvin은 1536년 9월 5일부터 성 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간과 N.T 중의 다른 몇 책을 강의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Farel의 도움으로 1537년 2월 13일 의회에서 6 gold Crowns의 보수를 주기로 결정될 때까지 거의 무월급으로 수고하였다. 당시의 Geneva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든든한 기초위에 서있질 못하여서 화란에서 많은 Anabaptist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으며 1537년에 열렸던 대의회에서 추방키로 결정되자 이번에는 Sorbonne의 박사인 Peter Coroli가 Arianism을 가지고 와서 Calvin과 Farel에 대항했으나 Calvin은 마태복음 7장 6을 인용하여서 그를 무신론자라고 논단하는 공박문을 발표하여 이에 Farel과 Viret와 Calvin이 서명하였다. 이리하여 Geneva 교회는 필요에 응해서 확고한 교리적인 원칙의 확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Farel과 Calvin은 신앙고백서, 계율서, 요리문답서 같은 문서를 계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1537년 1월 16일과 동년 7월 29일에는 200명의 의원이 참석한 대의회에서 신교도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세한 규율들이 의원들의 결의로서 발표되자 Geneva 교회와 국가는 확고한 윤법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Geneva의 의회는 이들 교회와 국가의 공로자인 Farel과 Calvin을 보호하였으나 이는 1537년 11월 15일에서 1538년 2월 3일 기어간(其於間)에 된 사실이었다. 1538년 4월 22일과 23일 연 2일간 St. Peter 교회에서는 큰 홍분하였으나 이는 1537년 11월 15일에서 1538년 2월 3일 기어간에 된 사실이었다. 1538년 4월 22일과 23일 연이일간 St. Peter 교회에서는 큰 홍분 속에서 회의하고 결국 Calvin과 Farel에게 3일내로 Geneva를 떠나라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능만 하다면 Geneva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5월 26일 재차 의회에서 강력한 추방령을 받자 어떤 폭풍우 심한 날에 Calvin과 Farel은 Basel을 가하여 서서를 떠났던 것이다.

Basel에 도착한 2주일후에 Farel은 그가 전에 봉사하던 Neuchâtel 교회의 초청을 받고 떠났고 Calvin 역시 2개월후에 Strassburg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III) 1538년 1541년까지 Calvin은 Strassburg에서 Bucer, Capito, Hedio, Sturm 그리고 Niger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대우속에서 신학교수로서 생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장차 Geneva에서 일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향유할 수 있었다. Calvin은 목사이고 신학교사인 점에는 geneva에서나 Strassburg에서나 다름이 없다. 그는 Strassburg에 최초의 불란서인의 신교교회를 설립하였고 당시 교인수는 불과 400명 정도였으나 모범적인 신교교회이었다. 이 교회는 1563년 8월 19일에 Strassburg 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개혁교회식 예배가 금지 당할때까지 25년간 왕성하였다.

Strassburg에는 John Sturm의 창설로서 신학부를 가진 신교대학이 1538년 3월 22일에 개교하게 되자 Calvin은 1539년 1월에 신학부의 조교수로 임명을 받고 요한복음과 로마인서와 또 몇가지 책을 가지고 강의하였다.

Calvin은 1539년에 유명한 Strassburg의 서점 Wendelin Rihel에서 "Institutes"와 "로마인서 주석"을 발간하였으며 또 그의 주기도문 해석본도 나왔다. Calvin은 마치 모세와 같이 피난처에서 한 정숙한 과부와 결혼하였으나 1549년 4월초에 그의 아내가 사망함으로서 9년간의 결혼생활에 불과하였다. Calvin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큰 슬픔이었음을 그의 우인에게 보낸 여러 서간속에서 엿볼수 있다. 그들 사이에는 한 아들이 있었지만 1542년에 죽고 말았다.

(IV) 당시 Geneva에는 세개의 중요한 당파가 있었으니 ① 정부당 (government Party, 혹은 Articlouds) ② 구교당 (Roman Catholic Party) ③ 개혁자들에게 우의적인 당파 (The Friendly Party to the Regormers) 가 그것이다. geneva의 지식층의 인사들은 Calvin이나 Farel이 geneva의 구조자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1540년 6월 17일에는 정부당에서 까지도 시민대회를 열어가지고 법왕권에 대한 공공연한 불평을 말하게끔 되었으니 자연히 Calvin의 이름은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평화" "질서", 또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1540년 8월 10일에 Marcourt와 Moiland 두 설교자가 사임하게 되자 남은 Henri de la Maie와 Jaegues Bernard는 Calvin의 Geneva 귀환을 겸손히 열망하게 되었고 동년 10월 13일에는 Calvin의 구우(日友)인 Michel du Bois를 시켜서 소환장을 발송하자는 결정을 보게 되었다.

Calvin은 동지들의 간곡한 권고대로 그립던 Geneva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Geneva의회의 동의주도한 환대를 받으면서 Strassburg 시민

들의 뜨거운 송별에 geneva 에 돌아갔으며 1541년 9월 13일에는 geneva 시청에서 열린 의회에 출두하여 인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Calvin은 여기에서 1564년 5월 27일 그의 죽는 날까지 23년간을 거의 철새없이 일했던 것이다. 신학자로서의 Calvin, 설교자, 교회치리자, 학교의 관리자, 동시에 목사로서의 Calvin은 일생동안 하나 아니면 두 사람의 짊은 서기를 데리고 일을 하였다. 그는 말할 수 없이 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듯 위대한 사업을 이룬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근 10년간을 일식으로 살았으며 수면 시간이란 극히 짧았고 산보도 식사후에 자기집 정원을 15분 내지 30분 걷는 것 외에는 장난도 유희도 않고 일만하였다.

Calvin의 저작열을 말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평생의 저서는 그의 신장보다도 높을 것이고 모두 다 각부문에서 오늘날까지 권위있는 문서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석의적문서 (Exegetical Writings)로는 그의 Commentary를 들수있는데 그는 O. T 와 N. T 의 거의 전부를 석의하였고 오늘 날까지도 성서연구자들에게 없을 수 없는 문서들이며 교리적문서 (Doctrinal Writing) 중의 대표되는 것은 물론 기독교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들 수 있다. 또한 변증적인 것과 호교적 문서 (Polemical & Apologetic Writings)는 로마교회에 대한 것 Anabaptism, Anti - Irinitarian에 대한 것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교회와 예배에 관한 문서 (Ecclesiastical & Liturgical Writings) 또한 설교문과 훈계문서 (Sermons & Homilies), 소논문집 (Minor Treaties), 시적문서 (Poetical Writings) 또한 서간문 (Letters) 등 말할수 없이 많은 것이다. 특히 Strassburg 판의 Calvin 전집에서는 4271편의 서간을 볼수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Controversialist (변론가)로서도 훌륭한 활약을 하였다. Pighius의 변론으로 시작하여 Jrent 회의 (1547년)에 대한 비평, 독일과 Roman Catholic 교회사이에 이루워진 반협약에 대한 논쟁 (1549년), 성골예배에 대한 비판 (1543년), Sorbonne 신조에 대한 논쟁 (1544년), Nicodemite 와의 논쟁 (1544년), 기타 Bolsec, Castellio, Uniteriarism Laelius - Secinus, Bernardius, Ochins 와의 성상에 대한 논평, 이태리 Antitrinitarian 과의 싸움, 또는 Eucharistic 논쟁, Heshasius 쟁론, 나가서는 Servetus 와의 논쟁이 있는데 이와같이 무수한 논쟁에서 Calvin은 꾸준히 또 가장 성실하게 싸웠다.

Theodoce Beza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Calvin은 한 주일간에 격일설교와 삼일만에 한번씩은 성서를 강의해야 했고 매목요일에는 장로회에 출석해야 하였고 매금요일에는 집회 (the Congregation)에서 정기 성경공부를 인도

하였었다. 하여간 그가 쓴 서간문의 수량으로나 저서의 수라든가 논쟁과 변론가로서의 업적과 또한 그의 학자로서의 꾸준한 연구생활 등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였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Beza는 Calvin 배후에 산 Farel이나 Viret 같은 친우들의 도움을 절대로 크게 인정하는 것이다.

Calvin은 출생과 교육은 불란서에서 받았고 필생의 대사업은 서서에서 이루었고 그의 폐난의 고귀한 생활은 독일에서 했으며 더욱이 Strassburg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구라파 삼대국의 시민인 동시에 그의 정신은 우주적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 우주적 정신은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운동체, 예컨대 Evangelical alliance, the Pan-American Council, the Pan-Presbyterian Alliance, Y. M. C. A 등의 조직체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는 그의 수많은 서간으로 보아서 교재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로 제왕으로부터 귀족, 왕족, 정치가, 고관, 일반천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재의 넓이는 놀라운 것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우인들은 역시 Melanchthon, Bucer, Bullinger Farel, Viret Knox, Beza, Peter Mertyr 와 John'a Losco 이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틈만 있으면 친구들을 찾고 동역자를 구했으나 대부분의 사상가도 말하듯이 Michael Servatus를 화형에 처한 것은 큰 실수였고 Calvin을 말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Calvin에게도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다. 그의 생명이 불원에 세상을 떠나게 될것을 알고 있던 Calvin은 유서를 쓰게 했고 유산을 분배하고 또한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 또 Geneva의 회원들과 이별의 인사를 거듭거듭하고 늦게된지 약2개월만인 1564년 5월 27일 태양이 서산에 절 무렵에 그는 영원히 세상과 작별하였다. 그의 죽임은 전 Geneva 시의 슬픔이었으니 전 공화국은 그의 가장 영원한 시민의 죽임을, 교회는 그의 충실하던 목사의 죽임을, 학교는 위대한 교수의 떠나감을 슬퍼하였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공동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공동의 위로자이었던 위인의 사망을 애도하였다. 영국여왕의 대사를 위시하여内外의 숭배자들이 그의 사체를 한번만이라도 보고자 모여들었으니 전체에게 구경시키지는 않았었다. 29일에 습관대로 사체를 배(아마시)에 싸서 목관에 넣어서 오후 2시항에 plain palis 공동묘지에 아무런 성의도 없이 유언을 따라서 묘비도 세우지 않고 매장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은 눈물로서 그의 죽임을 슬퍼하였다.

(이 논문은 신학회주최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초한것임.)